

아! 고구려, 안시성(安市城). 그리고 남과 북



김명태의 **市井漫談**
시·경·만·담

우리 역사의 영원한 자부심이라 할 고구려(高句麗)에 대한 감정은 한민족이라면 떠나없이 동일하다 해도 과언이 아니다. 대륙의 패권을 놓고 중국의 역대 왕조와 자웅을 겨뤘던 고구려인의 기개가 연연히 흘러오기 때문이다. 고구려가 당시 통합했던 영토의 넓이도 넓이지만 5천년 역사의 발원인 고조선의 정통을 이었다는 점에서도 특히 그렇다.

흔히 왕조의 터전을 뒤가려 새 왕조를 연 군주에게 사후 '태조(太祖)'나 '고조(高祖)'라는 시호를 올려 존송(尊崇)하게 일반적이다. 그러나 고구려는 시조, 고주몽이 아닌 6대왕에게 태조라는 시호를 올렸다. 왜일까. 이 시기에 고구려의 고토 회복(多勿) 활동이 가장 활발하게 전개되고 그에 따라 고조선의 성세에 버금가는 대강국이 되어서 그랬을 터다. 천년의 제국은 그러나 허무하게 종말을 고하고 말았다. 왕조말 최고 권력층의 내분이 붕괴의 원인으로 작용했다.

천년의 제국이 꿈꿨을 강국(強國)을

고구려를 우리 고대사의 자부심으로 삼음만한 요인은 차고 남친다. 그 중의 하나를 꼽자면 '안시성(安市城)'을 들 수 있다. 안시성의 성주(城主)는 양만춘으로 알려져 있다.

성주 양만춘은 본국의 군사적 지휘가 끊어진 외로운 성에서 얼마안되는 성민과 군사들을 지휘해 수십만 당(唐)나라 군대를 막아낸 용장(勇將), 지장(智將), 맹장(猛將)이었다. 정사(正史)는 그에 대한 기록을 별로 남기지 않았다. 심지어는 '안시성 성주가

과연 양만춘인가'라는 역사적 불확실성마저 있다. 몇 안되는 기록과 야사(野史) 및 구전으로 양만춘과 그의 빛나는 전과를 전해내려 오고 있을 뿐이다.

그도 그럴 것이 성주 양만춘이 안시성 수성을 전후해 고구려의 최고 권력자, 대마리지 연개소문과의 불화(不和)의 관계에 있었다. '역사는 승자의 기록'이라는 말처럼 연개소문의 그늘에 가려 양만춘의 존재(將材·장수로서의 자질)가 지워지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역사적 의심도 있다. 이웃나라의 당당하고 한결찬 역사를 자신들의 주변부 역사로 왜곡시켜 버린 한인(漢人)들의 거짓 사관(史觀), 우리 스스로의 위축된 사대(事大) 사서인 '삼국사기'에 의하면 연개소문도 나라를 망친 독재자로 억울한 누명을 썼다.

단재(신채호)와 백암(박은식)이 각각 '조선상고서'와 '천개소문전'에서 연개소문을 '위대한 혁명가', '독립 자주의 정신과 대외 경쟁의 담력을 지닌 우리 역사상 일인자'로 높이 올려준 것과는 천양지차의 평가가 아닐 수 없다.

연개소문은 영류왕을 시해한 뒤 그의 조카 보장왕(고구려 마지막 왕)을 허울로만 내세우고 군권(軍權)과 인사권을 장악, 당대 최고의 권력자(대마리지)가 됐다. 영류왕은 수(隋)나라를 이어 중국 대륙을 통일하고 중국 중심의 세계질서를 구축하려 대외 팽창정책을 일삼던 당나라에 굴욕적인 저지세 외교로 일관했다.

고구려는 건국 이후 대륙의 수많은 왕조들과 당당히 패권을 겨루고 100만 대군을 앞세운 수나라의 침략을 물리쳐 멸망의 길로 들어서게할 만큼 강성한 나라였다. 동북아의 강국으로 자존감을 잃지 않으려는 연개소문의 입장에서는 당과의 일전(一戰)을 위해서도 영류왕 등의 세력을 제거할 필요가 있었을 거다. 비록 그의 사후 뜻난 자식들(남생, 남건)에 의해 강성했던 제국이 허망하게 무너져 내렸지만 그의 생전에는 수나라를 이어 새로운 대륙 세력이 된 당나라 최고의 영주(英主), 이세민(태종)의 군대를 꺾을 시킬만큼 성세를 구가하지 않았던가.

이세민의 군대가 고구려 침략에 나섰다가 저절로 패배를 경험한데는 양만춘이 지키던 안시성을 넘지 못한 원인이 빠뜨릴 수 없다는 점에서 양만춘은 연개소문과 함께 대고구려의 마지막을 장식한 장엄한 불꽃이었음이 분명하다. 우리 사극이나 드라마에 주요 소재로 채택됐던 고구려의 상징, 안시성이 얼마전 개봉해 만만치 않은 흥행기록을 세웠다.

남과 북이 다시 하나돼 이뤄나가야

이 시점에 새삼 고구려와 안시성을 떠올린 것은 문재인 대통령이 중심이 되어 남과 북의 냉전(冷戰) 분위기를 허물고 한반도 평화와 이를 바탕으로 다시 하나됨을 향해 달려가기를 바라는 마음에서다. 물론 한반도 평화는 남북이 마음을 합친다고 해서 쉬이 이뤄질 사안은 아니다. 북한의 완전 비핵화를 전제로 미국과의 관계 개선, 중국 및 러시아 등 주변국과의 이해 등 한반도를 둘러싼 복잡다단한 문제 풀이는 결코 쉽지 않다.

그럼에도 남과 북은 평화와 공동번영, 하나됨을 향한 발걸음을 멈추어서는 안된다.

문 대통령은 지난달 19일 평양 남북 정상회담을 위해 방북해 평양 능라도 종합체육경기장에서 15만 평양 시민들에게 "우리는 5000년을 함께 살고 70년을 헤어져서 살았다"고 했다. 아마도 그 연설에는 5천년을 함께 산 한민족이 이제 지난 70년의 적대를 완전히 청산하고 다시 하나 되기 위한 평화의 큰 결심을 내미자는 간절한 염원을 담았으리라. 그리고 문 대통령은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손을 맞잡고 우리 땅을 통해 민족의 영산, 백두산 상상봉에 올라 천지의 물을 만났다.

오래전 중국의 광대한 대륙을 통괄했던 고조선의 고토회복에 나섰던 고구려, 제호(帝號·광개토 대제·廣開土 大帝)를 칭하고, 독자적 년호(영락·永樂)를 내세웠으며, 나라의 기록을 세가(世家)가 아닌 본기(本記)로 남겼던 대고구려의 꿈을 향해 남과 북이 하나로 나아가야 결국 꿈일 수만은 없다. **노상주**

여행이 별건가요

컬처에세이



김향조
광주관광협회 부회장

간입니다. 오늘, 내일, 모래, 글피 해야 할 일들이 일정에 끊임없이 적혀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오늘도 내일도 아닌 다음 기회로 미루게 됩니다. 다음 기회로 미루다보니 끊임없이 이어져 따라옵니다.

할 일이 태산처럼 쌓여 있다고, 늘 바쁘다고 외쳐댁니다. 하루를 보내고 해질 녘 사라져 가는 붉은 노을처럼 열정도 사라져 갑니다. 메마른 일상에 점점 늘어지지만 합니다. 축 늘어지는 몸을 달래기 위해 휴식을 취해 보지만 쌓인 피로는 쉽게 사라지지 않습니다. 잘 하던 일도 귀찮아지고, 힘겨워하는 나를 들여다보니 조금 안쓰러워집니다. 이럴 때 저는 꼭 여행이 필요하더라고요.

여행,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지 말고 때로는 계획 없이 무작정 떠나 보는 것도 괜찮을 거예요. 계획된 일정에 시간과 장소를 정해놓고 가는 여행이 얽매이는 느낌을 받을 때도 있습니다. 많은 날, 먼 곳, 이롭난 곳일 필요는 없습니다. 뚜렷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잠시 휴식이 필요할 뿐입니다. 무조건 떠나야겠습니다. 즉흥적으로 만나서 함께 떠날 수 있는 사람이 있으면 더욱 좋습니다. 때로는 홀로여도 괜찮습니다. 모든 것을 바야 버릴 넓은 마음만 있으면 됩니다. 목적지는 이 가을 단풍이 있는 곳이면 어디든 좋습니다. 병풍처럼 둘러싸인 산과 옷을 갈아입고 마

중 나온 나뭇잎, 이들을 춤추게 하는 바람이 반겨 줄 테니까요. 바람이 조금 차갑게는 돌이 손을 잡아 체온을 나누면 됩니다. 혼자라면 팔짱을 끼고 나의 온기를 느껴 보는 것도 좋습니다.

여행이 별건가요. 내가 사는 곳을 떠나 아름다운 경치나 이름난 장소를 돌아다니며 구경하는 것이 여행의 목적 아니겠어요.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있다면 건강한 몸과 마음만 있으면 되겠지요. 복잡하게 생각하지 말고 철저히 준비하지 않아 조금 부족하면 어때요. 반복되는 일상에서 잠시 벗어나는 것만으로도 틀에 갇혀 있던 나를 놓아 주면 좋지 않을까요.

어느 날 점심식사를 하다 앞에 앉아 있던 친구가 나처럼 울적해 보이기에 느닷없이 차에 태우고 길을 나섰습니다. 끝없이 갈 것처럼 말없이. 어느 순간 바깥 경치에 말문이 터집니다. 길가 가로수가 온통 아름다운 빛깔로 단풍이 들었네요. 단풍 빛깔에 젖은 우리의 마음이 가을바람을 타고 하늘을 날아갑니다. 들의 얼굴에 환한 미소가 피어납니다. 이것이 여행이 없었죠. 긴 여행이 아니면 어떤가요. 짧은 여행이었지만 여름 뜨거운 태양에 짓눌렸던 것들이 모두 날아갑니다. 한 나절의 짧은 여행이 무거웠던 마음을 가볍게 만들어 주네요. 여행이 주는 선물입니다.

라고 생각합니다.

핸드폰과 전자기기의 발달과 보급으로 인한 불법 촬영 범죄 증가로 인한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기 위해 불법촬영 등 대 여성악성범죄 근절 및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활동 등 국민 속의 경찰이 되도록 다각적이고 정교한 정책을 펼치고 있다.

참고로 지난 9월28일부터 개정된 도로교통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전자적 안전띠 착용, 자전거 음주운전 처벌, 자전거 안전모 착용(훈시규정), 경사진 곳에 주차시 미끄럼사고 방지장치 의무화 등이다. 안전을 위해 적극 동참해 주실 것을 당부 드리면서 73주년 경찰의날을 앞둔 경찰은 국민이 필요한 곳에서 먼저 국민을 맞이하는 경찰이 될 것이다.

최형배 (광주서부경찰서 동천파출소 1팀장)

시설

시민판단 흐리는 공론화 찬반토론을 우려한다

지역 최대 현안으로 16년을 끌어난 도시철도 2호선 문제를 풀기 위한 공론화가 진행중이다. 그러나 찬반 양측의 막무가내식 주장으로 시민 판단에 되레 악영향을 주고 있다.

지난 10일부터 찬반 여론조사에 돌입한 공론화는 각 방송사에서 찬반 양측의 토론전도 병행되고 있다. 하지만 토론회에서는 찬반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하면서 검증 안 된 근거 없는 주장들이 난무해 과연 누구를 위한 공론화인가 하는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공론화의 최대 쟁점은 세가지 정도로 요약된다. 2호선의 재정문제와 수용능력, 접근성 등이다. 그러나 양측의 간극이 너무 커 무엇이 사실인지 시민 판단을 흐리게 할 정도다.

아전인수격 수치만 나열하는 관계로 무슨 이야기인지 모르겠다는 시민 불만이 쏟아진다. 우선 재정문제에서 반대측 시민모임은 "2호선 건설로 도시 철도 적자가 최대 1천500억원으로 증가하고 공사비가 3조원으로 급증해 광주시 재정으로 감당할 수 없다"고 강조한다. 반면 찬성측은 "2호선 적자는 연평균 운영적자 240억원 정도로 광주시가 충분히 감당할 수준이다"는 입장이다.

수용 능력에서도 반대측은 "달랑 2칸에 36석"이라는 자극적 표현으로 부정적 입장을, 찬성측은 "하루 최대 수용인원 43만명"이라고 강조해 시민

판단을 흐리게 하고 있다. 접근성에서도 양측은 "정지역 30분"과 "교통문제가 심각한 지역인 북구나 야구장·터미널 지역은 혜택을 누리지 못한다"고 대립, 오히려 시민 판단을 헷갈리게 한다.

물론 토론에서 각자의 주장은 있을 수 있다. 그러나 지금 같은 출처 불명한 주장에 광주시민 몇 사람이나 이해할지 의문이 든다. 교통 전문가들이 차분히 설명해도 모를 판에 서로를 향해 호통만 치는 듯한 주장의 난무로 시민 판단을 돕기는 커녕 편만 가르리는 공론화 토론으로 전락한 느낌이다.

토론은 주장이 합리적이고 설득력이 있어야 한다. 도시 철도 2호선 건설과 관련해 좋은 점과 나쁜점이 있을 수 있다. 공론화를 하는 이유는 도시 철도 2호선으로 얻는 것과 잃는 것이 무엇인지를 시민의 판단에 맡겨 더 나은 광주 미래를 설계해 보자는 것이다.

지금처럼 근거 없는 주장만 강조한다면 건전한 공론화에 회의감을 야기할 수 있다. 더 이상 소모적 대립이 아닌 차분한 시민 설득으로 방향을 전환하길 바란다. 숫자 부풀리기와 상대를 비방만하는 선전전은 결국 서로에게 불리하게 작용할 뿐이다. 시민을 생각하지 않는 주장은 중단해야 마땅하다. 공론화를 위한 공론화를 지켜보는 시민의 눈이 차갑게 식고 있다.

무산위기 '광주형일자리' 불씨 살려 나가길

무산위기에 처했던 '광주형 일자리' 불씨가 다시 살아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노사상생형 일자리 모델의 주요 축이었던 노동계가 광주시에 공개질의서를 통한 대화를 재개해서다. 시민사회단체와 학계, 재계 등의 우려 속에 노동계가 논의에 참여 의사를 밝힘에 따라 기대를 품게한다.

한국노총 광주본부 등 노동계는 지난 16일 광주시에 공개질의서를 보내고 시가 이에 답변을 함에 따라 일단 양측의 대화가 재개될 모양새다. 노동계의 질의서는 현대자동차의 투자 유치와 관련한 내용들이다. 즉 시 요구안의 변경 가능 여부와 현대차와의 합의 사항, 합의 사항 재논의 가능 여부 등을 담았다. 또한 현대차와의 향후 협상 입장을 묻고 노동계가 참여할 경우 교섭방식 추진, 시교섭단 구성과 노동계 참여자 선정 방안, 노동계의 대표 권한, 교섭 결정 방식 등도 포함됐다.

이에 시는 답변서를 통해 현대차 투자 유치 규모와 지원 비용, 완성차 광주공장의 생산 대수 및 방식, 직접 고용 인원 수 등에 대해 확인해 준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노동계의 불만을 촉발시킨 '적정임금'과 관련해서는 변동이 있을 수 있다는 애매모호한 답변을 내놓아 양측의 갈등이 쉽게 해소되지 않을 전망이다. 대기업 빈값 수준의 연봉이 어느 정도나를 두고서다.

시는 부속협정서에 적정임금은 임금체계 단순화, 직무직능급 중심으로 결정되되 기본급을 높이는 구조로 주 44시간, 평균초임연봉 3천500만원을 최소한 보장하겠다는 입장이다. 구체적인 임금 체계 및 수준은 신실법인이 경영수치 분석 등 전문 연구용역을 통해 결정하겠다는 조건을 달고 있어 적정임금 당초 제시했던 것보다 낮아질 여지를 남겼다. '노·사·민·정 대타협'을 전제로 한 협상 추진도 '노동계 의사 반영을 위한 대표가 광주에 포함하겠다'는 원론을 되풀이 했다.

대화 재개 입장을 보인 노동계측은 시가 모든 것을 공개하고 함께 협의하는데 성의를 보이지 않는다는 불만이다. 시가 여전히 구체적 사실없이 두루뭉실한 답변만 늘어놓고 있다는 이야기다.

한편 더불어민주당은 광주형일자리 불씨를 살리고 이의 전구 확산을 위해 중앙당 최고위원회 차원의 논의를 진행하고 이해찬 당대표가 광주에 와 진행 상황을 살펴볼 예정이라고 한다.

지역내 일자리 창출은 광주시가 직면한 최대 현안인 아닐 수 없다. 광주형일자리 모델은 일자리 창출을 위한 마중물이라 할만 하다. 이를 구체화하려면 광주시의 진정성있는 태도와 노동계의 적극적인 화답이 필요하다. 노·사·민·정이 진정성 있게 머리를 맞대야 한다.

가성비와 가심비

"그동안에는 가격 대비 성능과 품질이 좋은 제품을 구입했는데, 이제는 나만을 위한 상품을 갖고 싶어 최근 몇십만원 하는 맞춤형 의자를 샀어요. 이 의자에 앉아 일하거나 책을 읽으면 기분이 좋아지는 느낌이 들어요."

최근 출입처에서 만난 40대 한 직장인의 이야기. 소비트렌드가 '가성비(價性比) 시대'에서 '가심비(價心費) 시대'로 서서히 바뀌고 있다.

불과 몇 년전까지만 해도 '가격 대비 성능'의 줄임말인 가성비가 뛰어난 제품을 구매하는 것이 소비자들의 당연한 의무처럼 여겨졌다. 가성비 좋다는 말은 가격이 저렴하면서 품질이 괜찮다는 뜻이다.

가성비의 경우 가격이 싼 것을 고르는 경우가 대부분이지만 가심비는 조금 비싸더라도, 설명 객관적인 성능이 다소 떨어지더라도 자신이 만족하는 제품을 구매한다. 제품의 성능 보다 자신의 주

관적 만족을 더 중요하게 여기는 것이다. 예를 들어 과거에는 1-2만원짜리 뷔페에 줄을 섰지만 요즘에는 한끼를 먹어도 제대로 된 음식을 먹자는 인식이 소비자들 사이에서 늘고 있다. 작고 확실한 행복인 '소확행', 내가 좋다면 가격을 따지지 않는 '나심비', 돈을 마구 써서 기분이 좋아진다는 '망진캠' 등과 같은 요즘 유행어들과 궤를 같이 한다.

올 초 서울대 소비트렌드 분석센터는 '소확행'과 함께 피로를 풀며 안정을 취할 수 있는 공간과 그런 공간을 찾는 경향을 뜻하는 스페인어인 '케렌시아(Querencia)' 등과 함께 '플라세보(Placebo) 소비'를 2018년 소비트렌드로 꼽았다. 플라세보 소비는 속임약인 '플라세보'와 '소비'가 결합된 말로 실생활에 합리적으로 필요한 소비는 아니지만, 소비를 함으로써 마음의 만족감을 느끼는 '가심비'와 비슷한 의미를 갖고 있다.

이런 소비 경향에는 문제가 있다. 가심비를 추구하면 할수록 소비자들은 높은 비용을 부담해야 한다. 자신의 마음을 만족시켜 주는 제품과 서비스를 하나씩 찾다보면 눈높이는 계속 올라가지만 지갑은 갈수록 얇아진다. 이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나 자신에게 '선물' 한두개쯤은 줄 수 있다. 그러나 지나치거나 과하면 화가 될 수 없다.

"당신은 가성비 소비자입니까? 아니면 가심비 소비자입니까?"

박석호 경제부장 haita2000@naver.com

발언대

73주년 경찰의 날 앞두고 '경찰은 언제나 국민 곁에서'

옛 부족사회에서도 그 사회의 안녕과 질서를 유지하기 위한 일정한 규범이 있었고 이를 경찰행위라고 했을 것이다. 조선시대 강화도조약은 서양의 사상과 제도가 들어오면서 근대경찰의 제도와 이념이 정립되는 계기가 되었고 1945년 광복과 미군정시대 그리고 1948년 대한민국 정부수립과 동시에 국립경찰시대를 맞이하게 되었다.

시대가 변해도 경찰은 사회공공의 안녕과 질서유지라는 본연의 임무를 지향하였으며 6·25 전쟁시는 조국수호를 위한 호국경찰로 역할을 다하였다. 경찰은 국민의 관심과 사랑, 때로는 질책을 받으며 1991

년 경찰청으로 독립하게 되면서 혁신적인 개혁과 발전을 하게 되었다.

강력범죄에 대하여 전국적인 대처가 가능하도록 경찰 무선망 확대와 112순찰차 도입등 경찰장비가 현대화 되었으며 특히 순찰방식도 시민의 치안욕구와 사회적 변화에 따라 효율적으로 개선되었다. 주민을 찾아가는 치안서비스인 문안순찰, 눈맞춤 좌담회, 그리고 주민스스로 경찰에 순찰회방시간과 장소를 요구하는 주민밀착형 탄력순찰제도와 더불어 지역사회와 함께하는 공동체치안과 스마트치안은 대한민국과 국민의 안전을 지키는 치안서비스 정책이

광주·전남 대표 정론지 **무등일보** 1988년 10월10일 창간 1988년 4월25일 등록번호 광주3(일간지)

회장 조덕선 사정 발행·편집인 장인균 논설주간 김명태 편집국장 김중석

주소 (우) 61234 광주시 북구 재봉로 324(충효동 700-5) SRB미디어빌딩 5층 대표전화 (062) 606-7700
광고접수 (062)606-7772 FAX (062)383-8765 구독신청 (062)606-7776

편집부 (062)606-7750 정취부 (062)606-7722 경제부 (062)606-7713 사회부 (062)606-7730 지역사회부 (062)606-7723
문화체육부 (062)606-7737 사진부 (062)606-7762 뉴미디어부 (062)606-7760 서울지사 (02)313-1681

구독료 한달 10,000원·1부 5000원 | 독자재보 062-606-7730·FAX 062-606-8765 | E-mail zmd@chol.com
홈페이지 http://www.mdilbo.com 페이스북 www.facebook.com/mdilbo7700 ※ 본지는 신문윤리규정 및 실천요강을 준수한다.

"언제 어디서든 광주를 한눈에!"

가장 빠른 광주뉴스

시라방 뉴스룸

무등일보·뉴스가 함께 만듭니다